

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방’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난항 예고

“낙마 1순위 임혜숙 자진사퇴해야” 보고서 채택 자체 거부

국민의힘은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3인방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대상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불가론’을 펴고 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 후보가 모두 부적격이지만 특히 임 후보자 제일 문제라고 본다. 그다음으로는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오늘까진 여권의 기류를 보겠다”며 “정의당 조자 낙마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주택·위원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필수 의혹이 불거진) 도자기가 총 1천250여 점이라고 얘기했다.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테크, 이른바 ‘관테크’(관사 제테크) 의혹을 두고도 “변명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

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채택 자체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여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 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라며 “임기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惡手)를 두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전날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5개 부처 후보자 가운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오는 6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광주부터 찾는다

김종인 잇는 ‘호남 구애’
7일 5·18 민주묘지 참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김 대표 대행이 7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의 광주 방문은 호남에 대해 당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5·18 추모탑 앞에서 무릎 사과를 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구애’를 잇는 행보이기도 하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 대행이 호남 민심부터 챙기는 것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영남당’ 프레임을 벗으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김 대표 대행은 앞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인재 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는 10일 호남

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한다. 김 대표 대행이 7일 광주행에 나서는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이곳으로 달려가 호남 민심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까지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한 초선 의원들은 김미애·김형동·박형수·유상범·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웅 의원 등 10명가량이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당을 신청한 김병욱 의원이 동행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옛 전남도청에 들러 5·18 단체 관계자로부터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광주를 문화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애초 5월 어머니회와의 간담회도 계획했다. 그러나 이날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향소식 첫 공판기일에 5월 어머니회와 참석하기로 해 간담회는 취소됐다.

/연합뉴스

“민주 최고위원 호남 후보 탈락, 지역 국회의원 각성해야”

광주경실련 촉구

광주경실련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단일후보가 최고위원에 탈락된 결과에 충격을 넘어 경각을 급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원들의 이중적 행태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원은 1인당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호남 당원 표만 분산 되지 않았다면 단일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측됐었다”면

서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개인과 계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는 호남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의 탈락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전폭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지만, 참여정부 시절보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퇴보해 광주·전남을 이탈하는 청년들은 늘어가 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의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뜻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여수·광양항 국제적 항만 육성 항만 통합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 투자·개발 정책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차별 개선을 주문했다.

5일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정책의 지역 불균형 항만투자과 개발을 지적하고, 여수·광양항을 국제적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항체계(Two-port system)로 육성하는 국가항만정책이 추진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부산 신항이 건설되면서 부산항 중심의 항만집중 정책이 추진되고, 국내 항만 투자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 상 민간투자를 제외한 정부 투자를 보면 부산·울산



·포항·마산항은 7조9943억원, 여수·광양·목포항은 1조9994억원, 인천항은 1조7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작되는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 투자 계획도 마찬가지다. 부산항은 5조2420억원으로, 여수·광양항의 2조1249억원보다 2.5배 이상 많다.

주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항만 인접해 제철소, 정유공장, 석유화학단지, 원유-LPG 비축기지 등을 갖춘 세계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살린 투자와 개발로 국가항만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어린이 랜선 초청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지난 4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어린이 랜선 초청 만남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정세균 출마 선언 속도조절

민주 대선 경선 연기론 대비

이재명 측 “일정대로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 불거지면서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늦어질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당을 재정비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한 뒤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경선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도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너무 일찍 대권 주자를 뽑으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선 연기론은 현행 당헌상 ‘대선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대선 120일 전’ 정도로 늦추자는 주장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경선 일정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굳이 출마 선언을 일찍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애초 이달 중순 출마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에는 이보다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6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당 논의상황을 보며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이광재 의원이 ‘6월 이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오는 9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는 12일 각각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지율이 열세인 만큼 출마선언을 일찍 함으로써 ‘선점’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9월에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후보와 호흡을 맞춰 개혁 입법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